

세계서 가장 섹시한 입술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에 살고 있는 안드레아 이바노바(22·사진)는 대학에서 독일문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다. 그는 최근 불가리아

에서 유행하는 도톰한 입술을 갖기 위해 입술성형을 하기로 했다.

이바노바는 “불가리아의 최신 유행이 바로 입술성형”이라며 “여성들이 도톰한 입술을 갖기 위해 경쟁적으로 입술성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바노바는 자신의 입술을 3배로 키우기로 하고 입술성형을 시작했다. 한번의 성형시술로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 입술을 크게 만들 수 없어 지속적으로 받아야 했다. 현재의 입술을 갖기까지 이바노바는 무려 15번 성형시술을 받았다. 히알루론산 등을 주입해 점점 커져가는 입술을 보며 이바노바는 크게 만족했다고 한다.

이바노바는 “입술을 키운 데 대해 정말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낀다. 내 입술이 정말 마음에 든다.”라며 “사실 도톰하고 사랑스런 입술을 갖는 건 어릴 때부터의 꿈이었다.”고 말했다.

이바노바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교류한다. 이바노바가 3배로 키운 입술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자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입술”이라고 칭찬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흉측하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바노바는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는 “다른 사람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내 입술이 나의 마음에 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난하는 사람을 보면 대개 여자들”이라며 “다른 사람의 의견은 (내게)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성형중독을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이바노바는 “절대 성형에 중독된 건 아니다.”라며 “열린 마음을 갖고 산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자 업고 현장학습 나선 스승

켄터키주에 있는 톨리초등학교 학생들은 최근 폭포가 있는 주립공원으로의 현장학습을 다녀오기로 했다. 그런데 한껏 들뜬 학생들 사이에서 한 소녀가 유독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선천적 기형으로 평생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는 네이버스(10)에게 현장학습은 그림의 떡이었다.

선천성 기형인 이분척추증을 앓고 있는 라이언 네이버스는 늘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 학교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지만 휠체어로 이동이 어려운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때가 많았다. 지난해 수학여행도 따라가지 못했다. 올해 현장학습 장소 역시 험준한 바위를 지나야 하는 폭포공원이라 따라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에 네이버스의 부모는 딸을 위한 대체학습을 준비하던 중 한 남성으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이 남성은 네이버스의 부모에게 딸의 현장학습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이후 밝혀진 그 남성의 신원은 네이버스가 다니는 학교의 교사 중 한 명인 짐 프리먼이었다.

프리먼은 25kg에 달하는 네이버스를 업고 험준한 바위

를 넘어 다니며 폭포를 구경시켜 주고 화석지대를 탐험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는 네이버스의 담임 교사도 아니며, 평소 학교에서도 거의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연이 알려지자 프리먼과 네이버스에게 언론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네이버스는 CBS 지역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선생님 등에 업혀 3억9,000만 년 전 화석을 구경했다. 실제로는 처음 보는 것들이었다.”라며 말했다.

프리먼은 “모든 학교에서는 이런 교류가 학교 일과 중 수 없이 반복된다.”면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교사가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라며 특별히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스의 어머니는 “이 이야기가 다른 신체장애인들에게 휠체어 때문에 무엇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면서 “휠체어가 당신을 제한하도록 두지 말라. 돕고 싶어 하는 좋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했다.

한 소방서 소방관 9명 줄줄이 아빠 됐다

지난 4월 오하이오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11명의 분만실 간호사가 비슷한 시기에 임신해 화제를 모았다. 3월에는 캔자스주 오크스트리 초등학교의 교사 7명이 한꺼번에 임신해 학교 측을 놀라게 했다. 메인주 포틀랜드의 한 메디컬센터 분만실 간호사 9명도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차례로 출산해 엄마가 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방관 9명이 모두 아빠가 되는 경사가 생겼다.



거의 동시에 부모가 된 소방관들의 소식이 전해지자 현지에서는 축하와 격려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동시에 아빠가 된 소방관들의 아내를 대표하는 가브리엘 코스텔로는 “우리가 동시에 부모가 된 것은 우연의 일치”라면서 “남편이 동료들에게 임신 소식을 전하다 다른 8명 역시 곧 아빠가 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놀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딸은 함께 자랄 수 있는 친구를 갖게 되었고, 자신 역시 육아의 어려움에 대해 교감할 수 있는 동지들을 얻게 되었다며 기뻐했다.

지난 23일 ABC뉴스는 샌버나디노카운티 랜초쿠카몽가 소방서 소방관 9명이 줄줄이 아빠가 됐다고 보도했다.

랜초 쿠카몽가 소방서 측은 “지난 3월부터 7월 사이 소방관 9명이 모두 아기를 품에 안았다. 이 특별한 순간을 놓칠 수 없어 단체 사진을 찍게 됐다.”며 “함께 부모가 되고 아기들이 자라는 모습을 다 같이 지켜볼 수 있게 돼 감격스럽다.”고 밝혔다.

이번에 아빠가 된 랜 쿠카몽시 소방관들은 아내, 아기 등 총 27명의 가족과 단체 사진을 촬영하며 기쁨을 함께했다.

밝은 미소, 건강한 치아

Implant
~~\$1700~~ → \$999

Implant
Free Consultation

Exam
X-ray
Cleaning \$35

Crown
~~\$500~~ → \$400

잇몸치료
~~\$600~~ → \$400

틀니
~~\$1200~~ → \$850

KMC Dental Group

Dr. Seong Hoon Cho
DDS



각종 보험
메디케어(PPO) 환영

Irvine

L.A.

Hacienda Heights

Tel: (949)253-8300
2700 Alton Parkway #225
Irvine, CA 92606

Tel: (323)660-2005
3755 W. Beverly Blvd. #200
Los Angeles, CA 90004

Tel: (626)333-3000
16388 Colima Rd. #201
Hacienda Heights, CA 91745